

만성질환이 자아개념(Self Concept)과 신체상(Body Image)에 미치는 영향

—천식환아를 중심으로—

장 호 순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목 차

I. 서 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고찰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IMAGE, 즉 신체상(Body Image)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¹⁾. 신체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복합된 개념으로 자신의 신념, 가치, 목표, 성격,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며, 인간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결정해 준다²⁾. 따라서 신체상이란 단순히 외모 뿐 아니라, 신체기능, 지각능력, 기동성(mobility)을 포함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보 및 감정, 지각의 끊임 없는 변화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산물이기도 하다³⁾.

프로이트(Freud)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자

아(ego)를 신체자아라고 하였으며, 자아가 신체의 시각과 개념, 그리고 신체와 관련된 감정을 포함하여 신체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그는 정신분석학 이론에 입각하여 신체상이란, 전자아(total ego) 구조발전에 기본이 되며, 후에는 성격형성의 핵심요소가 되고 성격발달에 관여한다⁴⁾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신체상은 질병, 수술, 사고시 파괴되며⁵⁾, 계속적인 증상이 수반되는 질병일 경우, 신체의 특별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하여 자신의 신체상에 변화를 초래시킨다⁶⁾고 한다. 특히 아동은 어른과 달리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며, 질병이 있는 기간에는 자신의 몸과 신체기능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⁷⁾. 또한 퇴행경향을 강화시키는 이인화(dep-ersonalization)의 경험을 하며 질병으로 인한 고통, 수술, 운동제한 등으로 신체상의 변화가 더

- 1) J.C. McCloskey, "How to make the most of Body Image Theory," *Nursing* 76, Vol. 6, No. 5(1976), pp. 67-70.
- 2) Luckmann and Sorensen, *Medical-Surgical Nursing* (W.B. Saunders Company, 1974), pp. 82-85.
- 3) J.C. McCloskey, op. cit., pp. 69-70.
- 4) S. Freud, *The Ego and The Id* (London: Hogarth, 1961).
- 5) Luckmann and Sorensen, op. cit., p. 82.
- 6) E.J. Anthony, "The Child's Discovery of his Body," *Physical Therapy*, Vol. 48, No. 10(1968), pp. 1112-1114.
- 7) E.H. Waechter, F.G. Blake and J.P. Lipp, *Nursing Care of Children* (New York: J.B. Lippincott Co., 1976), p. 538.

속 조래된다⁹⁾. 질병으로 허약해지는 것은 창피한 감정을 갖게할 뿐 아니라 이전에 성취했던 행위를 성취할 수 없게끔 좌절을 느낌으로서 자존심(self-esteem)의 상실을 주며, 계속적인 좌절은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여 자아의 상실까지 위협을 끼치게 된다¹⁰⁾.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때 신체상이란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경험을 통해 발달시켜온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으로서, 질병, 수술, 사고 등 여러요인에 의해 영향받으며 나아가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상이 파괴되고 위협을 받고 있을때 신체상은 제조적될 필요성이 있고 간호원은 환자가 신체상 파괴로부터 고통받고 있을때 도와 줄 수 있다¹⁰⁾고 한다. 따라서 간호원은 환자와 관련된 의미있는 간호사정과 간호계획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체상에 대한 개념을 시용해야하며, 신체상에 대한 이론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¹¹⁾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기적인 신체질환으로 아동에게 청서적인 부담과 건강 및 통증, 운동의 제한 등을 초래시키는 만성질환 가운데, 특히 아동에게 많은 전식실환을 중심으로 환아와 정상아의 신체상을 비교 검토하여, 만성질환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상이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적 사실을 밝혀 봄으로서 환자간호를 임하는 간호원에게 신체상이 간호과정에 적용해야 할 유용한 개념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상은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적 사실을 검증해 봄으로서 환자간호에 신체상이 유용한 개념임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한다.

2.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신체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환아: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Y대학 부속병원 소아과 외래 알러지클리닉(Allergy Clinic)에 등록된 아동중 천식(Asthma)으로 진단받은 만 9~12세 아동.

2. 정상아: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I국민학교 재학중인 만 9~12세 아동으로 건강기록부상 특수한 질환이 없고, 양호교사에 의해 정상발육 범위내에 있다고 판명되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

3. 신체상(Body Image): 자신의 신체의모나 그 기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느낌, 태도 및 지각.

4. 자아개념(Self Concept):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개념 전체.

4. 가설

1. 환아군이 정상아군에 비해 부정적 신체상을 가질 것이다.

2.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자아개념이 낮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환아군은 소아과 외래 '알러지클리닉(Allergy Clinic)'에 등록된 천식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1982년 10월 7일~23일까지 천식치료를 위하여 재 방문한 만 9~12세의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의 참

8) Luevonue Lincoln, "Effect of Illness and Hospital Procedure on Body Image in Adolescents: A Review of Literature,"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Vol. 7, No. 2(1978), pp. 55-60.

9) Keva Rubin, "Body Image and Self Esteem," *Nursing Outlook*, Vol. 16, No. 6(1968), pp. 20-24.

10) Luckmann and Sorensen, op. cit., pp. 82-85.

11) Ruth, L.E. Murray, "Symposium on the Concept of Body Imag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7, No. 4(1972), pp. 594-595.

여를 수락한 36명이었다.

정상아군은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I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 학년별로 1 학급 무작위로 표집한 후 다시 학급별로 15~20 명씩 무작위로 표집하여 ①단 9~12세 아동으로 ② 건강기록부상 특수한 질환이 없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아동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44명이었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와 문헌을 기초로 저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데 질문지 내용은 환아용과 정상아용 2가지로 사용하였다.

환아용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 9문항, 신체상 측정을 위한 내용 53문항, 자아개념 측정을 위한 내용 7문항 등 총 6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상아용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 5문항, 신체상 측정을 위한 내용 53문항, 자아개념 측정을 위한 내용 7문항 등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신체상 측정을 위한 도구¹²⁾¹³⁾¹⁴⁾¹⁵⁾

Secord와 Jourard에 의해 개발된 신체적 만족도 도구(Body Cathexis Scale)와 Osgood이 개발한 의미적 방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사용하였다.

1) 신체적 만족도 도구(Body Cathexis Scale)

Secord와 Jourard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신체 각 부분과 기능에 대해 만족, 불만족의 정도를 잴 수 있는 도구이다. Secord와 Jourard 및 그의 여러학자에 의해 수정되었고, 신체상 측정을 위해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신뢰도가 인

정되었다(Jourard & Secord, 1955, Reliability, .78~.83, Wineman, 1980, Split-Half Reliability, .78~.83). 그 내용은 신체 각 부위와 신체 기능에 관한 총 46문항이며 5단계 평정법으로 된 Likert Scale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이¹⁶⁾”의 척도를 참고로 하였으며, 2번의 사전 조사로 수정 보완하여 아동의 이해를 쉽게 하였고,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항목을 첨부하여 아동에게 강요하는 질문이 되지않게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의 Cronbach's Alpha Reliability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alpha=.902$ 로 신뢰도가 높게 산출되었다.

2) 의미 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이하 S-D로 함)

Osgood이 개발한 의미척도법은 언어의 의미나 가치와 같은 주관적 의미표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적용에서 아동들에게 “나의 몸(신체)은”이라는 개념으로 의미구조를 파악하게 하였다. 사물의 인지과정에 있어서 일반요인으로 평가(Evaluation), 능력(Potency), 활동(Activity)인자를 들 수 있는데 振¹⁷⁾의 보고 중 본 조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을 문헌고찰¹⁸⁾을 통해 10개의 상반되는 개념 10문항을 선택하여 2번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였으며, 5단계 평정법(평범하다 5-4-3-2-1이상하다)으로 된 Likert Scale이다.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분석과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SPSS의 Cronbach's Alpha Reliability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결과

- 12) P.E. Secord and S.M. Jourard, "The Appraisal of Body-Cathexis: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17, No. 3(1953), pp. 343-347.
- 13) D.A. Bille, "The Role of Body Image in Patient Compliance and Education," *Heart and Lung*, Vol. 6, No. 1(1977), pp. 143-148.
- 14) N.M. Wineman, "Obesity: Locus of Control, Body Image, Weight Loss, and Age-at-Onset," *Nursing Research*, Vol. 29, No. 4(1980), pp. 231-237.
- 15) J. Fawcett and Susan Frye, "An Exploratory Study of Body Image Dimensionality," *Nursing Research*, Vol. 29, No. 5(1980), pp. 324-327.
- 16) 이영률,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내력원, 1981.
- 17) 장동환,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대논문집, 9권(1964), 191-205면.
- 18) 박영숙, 이성희, "신체장애자 및 간호원의 신체장애지 인지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의학*, 30권, 1호(1976), 107-111면.

$\alpha = .809$ 로 신뢰도가 높게 산출되었다.

2. 자아개념(Self Concept)측정을 위한 도구¹⁹⁾

Jacox와 Stewart가 개발한 코오넬 의학 지수(Medical Conell Index)의 J subscale을 수정한 건강자아개념(Health Self Concept)도구를 사용하였다. 코오넬 의학 지수(Medical Conell Index)의 J subscale은 9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Jacox와 Stewart에 의해 7문항으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이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대학원 석사과정의 간호학 전공학생 3명과, 지도교수와의 협의 및 2년의 사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82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외래진료를 하지 않은 수요일을 제외한 약 16일간이었다.

1. 환아군

소아과 외래 알러지 클리닉(Allergy Clinic)에 방문한 환아 중 연구대상이 되는 환아를 확인한 후 연구자와 간호대학 석사과정 1명의 협조를 얻어 진료실에서 실시하였다.

환아나 그의 환아와 함께 온 보호자에게 연구목적 및 질문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뒤 환아에게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직접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보호자의 참여 및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보호자와는 분리시켰다. 일반적 특성은 보호자 혹은 환아와 면접하여 기록하였고, 그의 담당의사와 병원기록지로 보충하였다.

2. 정상아군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I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약 8~12명씩 집단으로 실시하였는데, 집단실시로 인한 동료 및 환경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과후 각 학급교실에서 연구대상자만을 남긴 후 실시하였다. 이때 충분한 시간과 개인질문의 기회를 주었으며, 자리배열시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주어, 환아군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목적 및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2번씩 설명한

뒤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와 면접하여 기록하였다(10월 25일~10월 27일)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신체상 측정 척도는 S-D도구와 신체적 만족도도구 2가지로 각각 점수를 내어 사용하였다. S-D도구로 측정한 신체상은 5단계로(평범하다 5-4-3-2-1 이상하다) 긍정적인 것을 5점으로 하여 1점까지 점수를 주었으며, 신체적 만족도도구로 측정한 신체상은 5부분으로 분류된 것을 “매우 만족하다” 5점으로 하여 “매우 불만스럽다” 1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자아개념 측정척도는 “예” 0점, “아니오” 1점으로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분석은 ① 환아군과 정상아군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test와 t-test로 비교하였으며 ② 질환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및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t-test, 상관계수 ANOVA의 통계적방법을 사용하였다. ③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5. 연구의 한계

1. 신체상 측정을 위해 사용한 S-D도구는 자가 문헌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표준화되지 않은 것이다.
2.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 표집한 것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집단이나 대상에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지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가설검증

설정한 2가지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가설 : 환아군이 정상아군에 비해 부정적 신체상을 가질 것이다.

19) Jacox and Stewart, "The Health Self Concept," In M.J. Ward and C.A. Lindeman, *Instruments for Measuring Nursing Practice and Other Health Care Variables*(Washington, D.C.: Dhew Pub.), p. 217.

제 1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D도구와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을 분석한 결과 S-D도구로 측정한 신체상은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아군에서 평균 34.33, 표준편차 5.792이었고, 정상아군에서 평균 39.97, 표준편차 5.932이었다.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은 215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아군에서 평균 125.77, 표

준편차 28.52이었고, 정상아군에서 평균 141.38, 표준편차 29.66이었다. 즉 환아군에서 부정적 신체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t-test로 검증한 결과 S-D도구와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이 각각 환아군, 정상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1참조).

표 1. 집단간 신체상에 대한 유의도 검증

	집단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S-D도구로	환 아 군	36	34.33	5.792	-4.28	p=.000***
측정한 신체상	정상아군	44	39.97	5.932		
	계	80				
신체적만족도	환 아 군	36	125.77	28.525	-2.38	p=.020*
도구로 측정한	정상이군	44	141.38	29.668		
신체상	계	80				
						p<.001***
						p<.05*

제 2 가설 :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자아개념이 낮을 것이다.

제 2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확인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각각에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즉 전체집단에서 S-D도구로 측정한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r=.5527$ 이었고,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r=.4035$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p<.001$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환아군에서 S-D도구로 측정한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r=.4499$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p<.01$),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r=.2529$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p>.05$). 정상아군에서 S-D도구로 측정한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r=.3999$ 이었고,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r=.3982$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p<.01$). 이를 종합해 보면, 신체상과 자아개념과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환아군보다는 정상아군에서 상관관계가 더 명확히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 신체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전체집단	환아군	정상아군
S-D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	$r=.5527^{***}$	$r=.4499^{**}$	$r=.3999^{**}$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	$r=.4035^{***}$	$r=.2529$	$r=.3982^{**}$
			$p<.001^{***}$
			$p<.01^{**}$

2. 신체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분석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신체상과의 관계를 전체 집단 및 각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연령과 신체상과의 관계는 전체집단에서 S-D도구로 측정하였을때 $r=.2751$ 이었고,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하였을때 $r=.248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었다 ($p<.05$). 환아군에서는 S-D도구로 측정하였을때 $r=.2231$ 이었고,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하였을때 $r=.14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정상아군에서 S-D도구로 측정하였을때 $r=.3210$ 이었고,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하였을 때 $r=.293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5$). 이를 종합해 보면 연령과 신체상과의 관계는 전체집단과 정상아군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환아군에서 연령과 신체상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²⁰⁾

표 3. 연령과 신체상과의 관계

	전체집단	환아군	정상아군
S-D도구로 측정 한 신체상	$r=.2751^*$	$r=.2231$	$r=.3210^*$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	$r=.2481^*$	$r=.1400$	$r=.2935^*$

 $p<.05^*$

에서 연령과 신체상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에 의하면 성별과 신체상과의 관계는 S-D 도구로 측정하였을 때 정상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상 평균점수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환아군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상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S-D도구를 사용하여 환아군의 신체상을 측정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lgas²¹⁾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

표 4. 성별과 신체상과의 관계

	집단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S-D도구로 측정한 신체상	전체집단	성별	남자	43	37.81	6.385	.56	.579
			여자	37	37.00	6.650		
			계	80				
	환 아 군	성별	남자	22	33.90	4.908	-.55	.589
			여자	14	35.00	7.114		
			계	36				
	정상아군	성별	남자	21	41.90	5.098	2.14	.038*
			여자	23	38.21	6.194		
			계	44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	전체집단	성별	남자	43	141.09	29.77	2.22	.030*
			여자	37	126.54	28.72		
			계	80				
	환 아 군	성별	남자	22	129.95	27.39	1.10	.277
			여자	14	119.21	30.04		
			계	36				
	정상아군	성별	남자	21	151.76	28.19	2.59	.013*
			여자	23	131.00	27.59		
			계	44				

 $p<.05^*$

20) D.A. Bille, op. cit., pp.143—148.

21) Marga Olga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Health Status and Body Image on their Children," *Nursing Research*, Vol. 23, No. 4(1974), pp. 319—323.

었다. 또한, 여성은 해부학적 취약성 때문에 항상 침투의 불안을 느끼며, 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등 신체부위에 대한 태도가 남·녀간에 다르다는 Fisher²²⁾의 주장과 그의 남·녀아의 신체상 간에는 질과 특성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힌 유²³⁾의 연구로 뒷받침될 수 있다.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환자의 신체상은 입원경험이 있는 군에서 신체상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입원경험이 있는 군에서 신체상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입원이 낮은 환경으로 환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움직임의 제한으로 신체상과 자아퇴행에 영향을 준다는 문헌연구²⁴⁾로 뒷받침될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입원경험과 신체상과의 관계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S-D도구로 측정된 신체상	입원경험	있다	20	33.25	5.23	-1.27	.214
		없다	16	35.68	6.33		
		계	36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된 신체상	입원경험	있다	20	122.45	27.9	-.78	.442
		없다	16	129.93	29.6		
		계	36				

입원횟수 및 천식입원횟수와 신체상과의 관계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입원횟수가 1회인 환자가 1회이상

인 환자보다 신체상 평균 점수가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 사려된다(표 6 참조).

표 6. 입원횟수 및 천식입원횟수와 신체상과의 관계

	특성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도
S-D도구로 측정된 신체상	입원횟수	1회	13	32.61	5.752	-.73	.475
		1회이상	7	34.42	4.237		
		계	20				
	천식입원횟수	1회	7	31.00	4.082	-1.01	.339
		1회이상	5	33.60	4.879		
		계	12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된 신체상	입원횟수	1회	13	119.09	32.102	-.59	.561
		1회이상	7	127.57	18.920		
		계	20				
	천식입원횟수	1회	7	128.57	32.659	.60	.561
		1회이상	5	119.40	10.015		
		계	12				

22) S. Fisher and S.E. Cleveland. *Body Image and Personality*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1968).

23) 유경미, "부모의 신체적 장애가 아동의 신체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교대학원, 1980.

24) Luevonue Lincoln, op. cit., pp.55-60.

천식의 발병시기 및 진단시기와 신체상과의 관계는 S-D도구로 측정하였을 때 연령이 어릴수록 신체상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하였을 때 천식의 발병시기와 신체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발병시기가 어릴수록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의 진단시기와 신체상과의 관계는 진단시기가 어릴수록 신체상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

으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천식의 발병시기 및 진단시기가 어릴수록 신체상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질병의 발병 및 진단시기가 어릴수록 질병기간이 길어지고, 신체상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질병으로 인해 신체상이 손상받기 때문인데, 이는 신체상 형성에 질병의 발병시기 및 진단시기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O'Brien²⁵⁾의 주장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천식의 발병시기 및 진단시기와 신체상과의 관계

	특성	구분	실수	평균	자유도	F값	유의도
S-D도구로 측정한 신체상	천식의 발병시기	1~3세	9	31.44	3	1.216	.320
		4~6세	8	34.00			
		7~9세	16	35.75			
		10~12세	3	36.33			
		계	36				
	천식의 진단시기	1~3세	3	29.00	3	2.375	.088
		4~6세	9	33.89			
		7~9세	14	33.36			
		10~12세	10	37.70			
		계	36				
신체적 만족도 도구로 측정한 신체상	천식의 발병시기	1~3세	9	117.33	3	4.310	.012*
		4~6세	8	103.50			
		7~9세	16	140.38			
		10~12세	3	133.00			
		계	36				
	천식의 진단시기	1~3세	3	117.33	3	1.289	.295
		4~6세	9	115.00			
		7~9세	14	124.93			
		10~12세	10	139.20			
		계	36				

p<.05*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Y대학

교 부속병원 알러지클리닉에 등록된 천식으로 진단받은 환자 36명과 서울시내 I국민학교 아동 44명을 대상으로, Osgood이 개발한 의미척도법과 Secord & Jourard의 신체적 만족도 도구, Jacox & Stewart의 Health Self Concept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25) Jayne O'Brien, "Body Image: Mirror, Mirror, Why me?," *Nursing Mirror*, Vol. 150, No. 17(1980), pp. 36-37.

만성질환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상은 자아개념과 관계가 있다는 이론적 사실을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 1 가설 “환아군이 정상아군에 비해 부정적 신체상을 가질 것이다”는 채택되었다($T=-1.28, p<.001, T=-2.38, p<.05$).

2. 제 2 가설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자아개념이 낮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r=.5527, r=.4035, p<.001$).

3.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분석에서 연령과 신체상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인 신체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r=.2751, r=.2481, p<.05$), 그외의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1)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평균=[37.81, 141.09], [37.00, 126.54]).

2) 입원경험이 있는군이 입원경험없는 군보다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평균=[33.25, 122.45], [35.68, 129.93]).

3) 천식발병시기 및 진단시기가 어릴수록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천식발병시기 : 평균=[31.44, 117.33], [34.00, 103.50], [35.75, 140.38], [36.33, 133.00], 천식진단시기 : 평균=[29.00, 117.33], [33.89, 115.00], [33.36, 124.93], [37.70, 139.20]).

결론적으로 환아군이 정상아군에 비해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자아개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체상이 만성질환으로 손상을 받을 뿐 아니라,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원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간호할 때 신체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상을 사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신체상 손상을 극복할 수 있는 놀이요법이나 가족중심간호를 실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 언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원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가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체상에 대한 개념을 간호과정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좀 더 많은 연구대상을 보다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만성질환아의 손상된 신체상을 재형성시켜 줄 수 있는 간호시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만성질환이 신체상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종단적인 연구(Longitudinal Study)는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경옥, “Rpy의 적용이론고찰,” 대한간호, 12권 3호 (1982), 49—57면.
- 유경미, “부모의 신체적 장애가 아동의 신체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0.
- 한성사, 하양숙, “심질환아에 대한 놀이요법이 신체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4권 12호(1981), 95—101면.
- Anthony, E.J., “The Child's Discovery of his Body,” *Physical Therapy*, Vol. 48, No. 10(1968), pp. 1112—1114.
- Cook, C.I., “Self Concept of the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s,” *Canadian Nursing*, Vol. 72, No. 10(1976), pp. 37—39.
- Fujita, M.T., “The Development of Body Image in the Child,”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7, No. 4(1972), pp. 597—607.
- Steele, Shirley, *Nursing Care of the Child with Long-Term Illness*, New York: Prentice-Hall, Inc., 1971.

—Abstract—

A Study of the Influence of Illness on Body Image and Self Concept

—Specifically in Children with Asthma—

Hyo-Soon Jang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a chronic disease on body image, and to show that body image is directly related to one's self concept.

Body image is the concept of one's own body based on present and past perception, and is related to one's self concept. Body image is a dynamic concept constantly changing throughout the life cycle but it changes greatly in illness, surgery, and accident.

The child with a chronic disease experiences pain and immobilization due to illness and he/she experiences a strange environment in the hospital. Illness often brings feeling of frustration and loss of self-esteem.

Therefore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the body image of a child with a chronic disease (Asthma), with that of a normal healthy child,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image and self concep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6 children being treated for asthma at the allergy clinic of 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patient group) and 44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 in Kwanak Ku Seoul (normal healthy group).

For the measurement of the body image, the researcher used Secord & Jourard's Body Cathexis Scale, and another scale which was constructed after reading about Osgood's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For the measurement of the self concept, the researcher used Jacox & Stewart's Health Self Concept.

The period for data collection was from October 7th to October 27th, 1982.

The analysis of data was done by use of Percentage, t-test, Chi-squar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NOVA.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first hypothesis, "That the chronically ill (Asthma) child will have a more negative body image than the normal healthy child." was supported.
2. The second hypothesis, "The more negative the body image, the lower the self concept." was also supported.
3. The researcher failed to obt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the 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hich affect the body image except in the case of the older child as compared to the younger child having a more positive body image ($r=.2751$, $r=.2481$, $p<.05$).

However it was found that,

- 1) Boys have a more positive body image than girls

(Mean=[37.81, 141.09], [37.00, 126.54]).

- 2) The child who has been hospitalized has a more negative body image than the child who has never been hospitalized

(Mean=[33.25, 122.45], [35.68, 129.93]).

- 3) The younger the child when the disease is discovered and diagnosed, the more negative the body image

(Onset of Illness: Mean=[31.44, 117.33], [34.00, 103.50], [35.75, 140.38], [36.33, 130.00],

Time of Diagnosis: Mean=[29.00, 117.33], [33.89, 115.00], [33.36, 124.93], [37.70, 139.20]).

In conclusion the chronically ill(Asthma) child has a more negative body image than the normal healthy child, and the more negative the body image the lower the self concept. Therefore the concept of body image is useful in understanding the influences of chronic disease on body image and self concept.